

## 가추법과 중국어 함축 의미

이 선 회\*

<目 次>

I. 들어가며	III. 화용적 추론과 가추법
II. 추론의 세 형태 연역법, 귀납법, 가추법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셜록 홈즈나 에르쿨 포와로가 등장하는 소설을 한 번쯤은 읽어 보았을 것이다. 홈즈는 예리한 관찰로 발자국이나 담뱃재 등의 단서를 찾아 이 사실들로 사건을 추리해낸다. 또 포와로는 범인의 배경, 주위환경, 심리 상태 등을 직관적으로 추리하여 범인을 밝혀낸다.

이처럼 관찰과 추리는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러면 이들이 행하는 추리는 어떤 추론일까? 홈즈는 “네 개의 서명”이란 소설에서 관찰과 추리에 관해 말하고 있다.

내가, 관찰과 추리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하자. 홈즈는 머리를 가로지었습니다.

“아냐, 그건 큰 착오야, 와트슨. 자네는 오늘 아침 위그모어가의 우체국에 갔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관찰만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거기에 가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전임강사

서 자네가 전보를 한 장 찼다는 것을 알아내기란 완전히 추리의 힘이 아니면 안된단 말이야.”

“야, 거참 놀랍군. 두 가지 꼭 다 맞았어. 오늘 아침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우체국엘 다녀왔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야기해 볼까? 자네의 구두코에 진흙이 조금 묻었는데, 마침 위그모어가에서는 요새 도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 누구나 우체국에 가려면 그 곳을 가지 않으면 안되지. 그런데 그곳의 진흙은 다른 곳의 흙 빛깔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관찰로 자네가 우체국에 갔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네.”

“음, 그러면 전보를 찼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나?”

“나는 오늘 아침 죽 자네와 함께 있었지만 편지 쓰는 것도 못 보았고, 또 열어 놓은 책상 서랍에는 우표와 엽서가 많이 있더라 말일세. 그런데도 일부러 우체국에 갔다는 것은 전보 치러 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것이 추리라는 걸세.”

여기서 나타난 흠즈의 추리는 대전제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연역적 추론이 아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법칙을 도출해내는 귀납적인 추론도 아니다. 탐정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추리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관찰한 후,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사례를 도출해내는 추론으로 흔히 ‘가추법’으로 불린다.

가추법의 추론형태는 연역이나 귀납이 논리학, 기호학 등에 엄격히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위의 예에서처럼 가추는 탐정소설에서나 등장하는 어떤 ‘특별한’ 사고활동이 결코 아니다. 또한 추론이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추가 특정 언어사용자들이 행하는 추론이 아니라 모든 언어사용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가추에 대한 중요성이 일찍이 제기되었으며, 화용론의 추론연구에 있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고는 가추법이 화용론적 입장에서 중국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떤 유형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 II. 추론의 세 형태: 연역법, 귀납법, 가추법

논의전개의 편의를 위해 연역과 귀납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흔히 말하는 과학적 추론 방식이라면 우리는 너무도 유명한 연역법과 귀납법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연역법의 다음 예에서 논의를 출발해보자.

- 1)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연역법은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형태이다. 즉 결과는 대전제가 참이라면 언제나 논리적으로 참이다. 이러한 연역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은 첨가하지 못한다.

- 2) s1---p이다  
s2----p이다  
.....  
따라서 s이면 p이다.

근대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 낸 이러한 귀납적 추론은 어떤 선험적인 가정도 없이 오직 관찰된 순수한 사실들만을 모아서, 수집된 사실들로부터 규칙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관찰이란 것도 인간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어서 단순히 발생하는 사실들에서 모든 사례를 예외 없이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예외적인 사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반박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므로 귀납적 추론으로 견고하고 완벽한 규칙을 세운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귀납적 추론의 결론에 대한 확실성은 연역법보다 떨어진다.

연역법과 귀납법에만 의존했던 과학적 추론에 '가추법(abduction)'<sup>1)</sup>이라는 새로운 추론방식은 추론의 시야를 확대시켰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는 가추법이라는 또 하나의 추론과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스는 흔히 '프래그머티즘의 창시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기호학자였고 가추법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기호학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추법이란 어떤 논리형태인가? 다음의 예를 보자.

- 3) 만약 p이면 q이다. .  
q이다.  
따라서 아마도 p이다.

가추법은 가설에서 어떤 결과(사건)가 먼저 나타났을 때 가설에 근거해서 전체도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추론형태이다. 피스가 든 유명한 완두콩의 예를 보자.

- 4) 이 가방에서 나온 모든 콩은 하얗다.  
이 콩들은 모두 하얗다.  
이 콩들은 이 가방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결론인 콩들이 이 가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콩들이 이 가방에서 나왔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개연성 있는 '추측성' 결론이지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이는 김성도(1998)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가추라는 추론을 통해 '그 같은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개연적 사실의 규범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김성도(1998)에서는

1) abduction은 귀추법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한다.  
2) 가설을 제시하고 연역적 과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귀결을 도출해 내는 가설연역법도 가추법의 형태를 가진다. 가설연역법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설이 옳다면 특정한 귀결을 갖는다. 특정한 귀결을 가짐이 경

가추법을 ‘하나의 추론적 행위로서 어떤 놀라운 현상을 발견한 후에 그 같은 놀라운 현상이 규범화될 수 있는 일정한 가설적 망(網) 또는 틀을 발명하려는 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추는 다음의 예처럼 흔히 현실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과학자나 탐정’의 추론방식으로 여겨진다.<sup>3)</sup>

5) 사건현장에 갑의 발자국이 있다 .

갑이 범인이라면 사건현장에 그의 발자국이 남는다.

갑이 (아마 확실히) 범인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추는 흔히 구체적인 사건에서 출발한다. 이 사건에서 경험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전제가 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논리적 추론인 연역이나 귀납과는 달리 가추는 화용적 추론이며 주위 환경이나 경험에 의존적이다. 이러한 가추적 추론을 헨슨<sup>4)</sup>은 다음과 같이 부호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1. 어떤 놀랄만한 현상 P가 관찰된다
2. 만약 H가 참이면 P가 설명될 것이다
3. 따라서 H가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P의 반복으로 H가 출현하는 귀납법과는 달리, 여기서는 H를 가정함으로써 P가 이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가추법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비단 탐정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통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에서 출발하는 경

험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가설은 옳았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추법의 논증과 같음을 알 수 있다.

3) 가추법을 중심으로 흄즈와 뒤팽을 비교한 논문 모음집으로 움베르토 에코와 토마스 시벅이 편집한 《논리와 추리의기호학》(1994)이 있다.

4) Hanson 140. 김영진(2005)에서 재인용.

우가 훨씬 많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가추법과 만날 수가 있다. 가령 누가 눈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보아서 그렇다고 하거나, 아침에 젖은 땅을 보고는 밤에 비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누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여기거나, 나이든 여자가 여러 남자와 맞선을 보는데도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면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등, 우리는 일상에서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가추적 사고를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듯 가추는 본능적이고도 지각적인 일종의 ‘비약’인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연역이나 귀납적 추론을 이처럼 많이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는 매일 가추하며 산다고도 한다. 5) 참으로 맞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본능적이면서 지각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추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연역에서처럼 결론이 전제 조건으로부터 반드시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귀납처럼 다양한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한 것도 아니어서 결론의 확실성은 귀납보다도 떨어지는 개연성 추론이다. 6) 그러나 새로운 지식참가의 면에서는 연역이나 귀납보다 높다.

이상으로 우리는 연역법, 귀납법, 가추법의 세 추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흔히 사용하는 부호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연역을  $a \rightarrow b$ ,  $b \rightarrow c$ 이므로  $a \rightarrow c$ 이다라고 하고, 귀납은  $a_1, a_2, a_3, \dots$ 을 종합해 볼 때  $a$ 이다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추는  $b$ ,  $a \rightarrow b$ 이므로  $a$ 일 것이다(또는  $a$ 로 볼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가추가 언어의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언어의 의미는 많은 경우에 문법화과정을 겪으면서 변화를 한다. 원래의 의미가 재분석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의 추론은 주로 “양의 격률”과 같은 화용추론이며, 논리적 시각에서 보면 가추법이다. 다

5) 김성도(1998)

6) 개연성 추론 가운데는 유비추론이라는 것도 있다. 흔히 유추라고도 하는 이 추론은 상이한 사물이나 대상이 몇 가지 성질을 공유할 경우, 한 쪽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다른 한 쪽도 역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음으로 화용추론을 이용해서 함축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추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Ⅲ. 화용적 추론과 가추법

추론은 주로 논리학의 관점에서 엄정한 추론의 법칙들과 같은 형식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추론도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진행되는 일종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언어의 실제적인 쓰임에 관심을 가진 화용론의 관점에서 언어학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화용추론이다.

연역법이 가정이 결론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예증적(demonstrative)이라면, 가정이 결론을 확률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는 귀납법은 비예증적(nondemonstrative)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이 결론을 확률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화용적 추론도 마찬가지로 비예증적이며, 언어사용자들의 경험적 인식에 근거하므로 개연적 추론(或然性推理)이기도 하다.

화용적 추론은 미국의 언어철학자 Grice가 처음 문을 열었는데 화용적 추론의 핵심이라면 흔히 함축(implicature)을 떠올린다. 화자는 함축을 통해서 문장의 문자적 의미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청자는 추론을 통해 함축의미를 이해한다. 이성범(2001: 201)은 인간이 추론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빌어 언어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연 언어의 특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함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7)</sup>

7) 함축은 유발되는 경로에 따라, 문장 내의 특정한 어휘나 구문이 갖는 고정적인 의미로 인해 촉발되는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과 일반적인 대화의 원리에 의해 유발되는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으로 다시 나뉜다. 본고에서는 함축의 의미와 분류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구분하지 않고 함축이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함축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Stephen C. Levinson(1992)를 참조할 것.

대화의 원리는 Grice의 유명한 협동원칙(cooperative principle)을 구성하는 대화격률로 대표된다. Grice의 이론은 화용적 추론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따른다는 협동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협동원칙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대화격률로 구성된다. 이 격률들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칙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a. 양의 격률: 적절한 양을 제공하라
  - 1.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할 것.
  - 2.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 b. 질의 격률(진실성의 격률): 당신의 기여가 진실한 것이 되도록 하라.
  - 1. 당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단언하지 말 것.
  - 2. 증거가 없는 것을 단언하지 말 것.
- c. 관계격률(관여성의 준칙)
  - 화제에 맞게 말하라. (관여성 있게 말할 것.)
- d. 방식격률: 명료하게 하라.
  - 1.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할 것.
  - 2. 불명확하지 않도록 할 것.
  - 3. 간결하게 할 것(쓸데없이 장황하지 않을 것)
  - 4. 순서에 맞게 할 것

그런데 일상대화에서 이 격률들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Grice는 이와 관련하여 네 경우들을 들고 있는데, 격률들을 조용히 표시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 미리 격률을 어기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경우, 또 여러 격률들이 충돌하면서 어기게 되는 경우와 고의로 명백히 어기는 경우가 있다. Grice에 따르면 대화함축이 생겨나는 것은 네 번째 경우인데 청자

는 상대가 협동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추론으로 함축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격률을 사용하여 함축을 도출해내는 추론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네 가지 격률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양의 격률에서 가추적 추론이 주로 관련되는 것은 첫 번째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老王有三个孩子”라고 말했다를 때, 그는 “老王只有三个孩子”의 의미를 함축하며 듣는 사람도 이를 추론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할 것”에 근거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은, 老王이 대화격률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만약 셋 이상의 자식이 있으면 분명 셋 이상이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양의 격률을 어기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가 협동원칙을 지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老王有三个孩子”라는 말은 “老王只有三个孩子”를 함축하고 있다. 아래는 추론과정이다.

- 6) 老王이 단지 세 명의 자식만 있으면 세 명의 자식이라고 말한다.  
 (셋 이상이면 셋 이상이라고 말한다.)  
 老王은 세 명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다.  
 老王은 단지 세 명의 자식만 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가추법의 전형적인 추론과정이다. 다음은 얼핏 양의 격률을 어긴 대화로 보인다.

- 7) a: 他写的文章怎么样?  
 그가 쓴 문장 어때?  
 b: 结尾很好。

결말은 아주 잘 썼어.

이민우(2002)는 b가 글 내용전체가 아닌 일부를 이야기 하므로 필요로 하는 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격률을 어겼지만, 이로 이해 의사소통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문장이 결코 잘 쓰이지 않았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예로 동어반복은 항상 참이므로 양의 격률을 어긴 대표적인 예이다.

8) 孩子还是孩子。

애는 역시 애야.

9) 他也许听, 也许不听。

그는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다.

위의 두 예에서 반복되는 부분의 진리조건이 동일하므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두 문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두 문장을 ‘애들은 다 똑같다(철없고 떠들며 뛰어다니고, 말안듣고, 등등.)’과 ‘그가 듣거나 안듣는 것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없다’와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함축의미를 지니는 문장들이다.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론과정을 통해 이 함축의미를 알 수 있는가이다. 필자의 대답은 가추법이다.

두 번째 격률인 질의 격률을 보자. 가추가 드러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이 격률을 위배하는 경우로 거짓을 말하거나 증거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때 협동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대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과는 그렇지만도 않다.

10) a: 小李最近怎么了?

샤오리 요새 왜 그래?

b: 这孩子翅膀硬了, 不听父母的话了。

개가 날개가 꺾어서(머리가 꺾어져서) 부모 말을 안듣는단 말이야.

b의 말은 그가 새가 아니므로 질의 격률을 어긴 것이지만, ‘스스로 능력을 구비하여 독립이 가능하다’라는 함축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질의 격률을 위반하는 경우는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비유법이나 수사법등과 관련이 깊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은유는 화용론 연구에 있어서 가추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사소통이다.

11) 你呀, 净跟人家医生唱反调。

너도 참. 항상 의사와 부딪히기만 하니?

12) 瞧你这将军肚。

너 배 나온 거 좀 봐.

“唱反调”나 “將軍肚”도 엄밀히 말해 발화의 내용이 노래를 하는 상황이나 묘사되는 대상이 장군이 아니면 질의 격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모두 비유적으로 쓰여, “상반되는 관점을 가지거나 상반된 행동을 하다”와 “똥똥하고 배나온 남자나 그 배”를 뜻한다. 한국어에서 “나는 맥주병이야”라는 은유 표현은 물에 가라앉는 맥주병과의 속성적 유사성을 상기시켜 수영을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은유의 의미 추론과정이 곧 가추의 과정이다.

“a는 b다”라고 말했다.

(a는 실제로 b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거짓을 말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와의 공통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b라고 말했을 것이다.

b는 c의 속성이 있다.

따라서 “a도 c의 속성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은유는 처음에 이러한 추론과정을 거치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빈도가 높아질 경우, 추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함축의미와 연결된다.

질의 격률을 위배하는 또 다른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완곡 표현이 있다.

13) a: 他昨天很厉害, 他把房子里的家具几乎都弄坏了。

그 사람 어제 아주 대단하던데, 집안의 가구를 거의 다 망가뜨렸어.

b: 他有点喝醉。

그 사람 (술)마시고 좀 취했지.

이민우(2002)는 b의 말이 완곡법으로, 사실은 “그가 몹시 술에 취했음을 함축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자상으로 “有点”이 있으므로 ‘술에 약간 취했다’ 이고, 그가 몹시 취했다는 함축의미는 a의 그가 어제 대단했으며 집안의 가구를 다 망가뜨렸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이 때 b는 양의 격률과 질의 격률을 동시에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b의 “좀 취했었다”의 말에서 강조되는 것은 “취했다”이지 “좀”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곡”이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b는 그가 어제 좀 취했다고 함으로써 b의 입장에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일종의 두둔이나 변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대화에서 청자는 b가 협동원칙에 위배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a가 말한 내용에 명백히 위배되는 b의 발화는 결국 완곡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가추적 추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有点”과 같이 소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완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많은데 기사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你多吃点儿”이나 “放聪明点儿”에서 “点儿”의 의미는 완곡의 의미로 보아야지 소량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같은 예는 한국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내가 좀 예쁘잖아”, “내가 능력이 좀 되잖아”, “니네 좀 살잖아” 등과 같은 예에서도 “좀”이라는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의미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관계격률을 보자. 관계격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대화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발화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협동의 원칙을 지

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표면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발화도 결국 함축의미를 나타낸다고 이해되어진다. 이민우(2002)는 관계격률을 어긴 듯한 대답의 함축의미가 추론되는 과정을 다음 대화로 설명하고 있다.

14) a: 晚上下盘棋吗?

저녁에 바둑 한 판 어때?

b: 女朋友来了。

여자친구가 왔어.

b의 내용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고, “晚上不能来下棋了(저녁에 바둑을 둘 수 없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며 a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함축의미의 추론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i) b가 “女朋友来了”라고 말했다.

(ii) b가 비협조적이라고 여길 이유가 없다.

(iii) b가 “女朋友来了”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협조의 원리를 준수하려고 한다면, b는 “晚上不能来下棋了”라는 뜻을 전달하려고 함에 틀림없다.

(iv) b는 a가 반드시 “晚上不能来下棋了”를 가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v) b는 a가 “晚上不能来下棋了”라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vi) 그러므로 b는 “女朋友来了”라고 말한 것이며,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晚上不能来下棋了”이다.

이민우(2002)는 이때의 추론을 개연적인 추론(或然性推理)이라고 했다. 개연적인 추론이라면 귀납적 추론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추적 추론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사실 위의 (ii)와 (iii)과정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가추적 추론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가 대화격률을 따를 것이므로, 만약 바둑 두길 원하지 않으면 (직접적으

- 로 싫다고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예의상 손님에 왔다는 등 다른 핑계를 댈 것이다. (가설)
- b는 여자친구가 왔다고 말했다. (사건)
- b는 바둑 두길 원하지 않는다. (결론)

또한 관계격률을 어기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을 피해 대화의 화제를 새로운 것으로 돌릴 때에도 흔히 사용된다.

- 15) a: 王太太的穿着就像只旧布袋。  
왕씨 부인의 옷차림은 낡은 포대같네요.
- b: 今天晚上的天气真不错, 不是吗?  
오늘 저녁 날씨가 좋죠?

어느 파티에서 a의 말에 대해 b는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하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식격률을 살펴보자. 고의로 방식격률을 어기게 되면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쓰거나 간결하고 조리있게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함축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의적인 표현은 광고에 자주 등장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자주 이용된다.

- 16) 给我小心点儿(统一 小心点拉面)  
a: 조심해  
b: 내게 小心점을 줘요
- 17) 不打不相识(某打字机)  
a: 안때리면 모른다. (맞으면서 정든다)  
b: (타자기를) 치지 않으면 모른다.
- 18) 全家就是你家(全家便利商店)  
a: 모든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  
b: 全家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 19) 人类失去联想, 世界将会怎样(联想电脑)

- a: 인류에게 연상이 없으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 b: 인류가 联想 (컴퓨터)가 없으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협동원칙에 따르면 일부러 중의적인 표현을 써서 의사소통을 실패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므로, 광고에서도 방식격률을 어김으로써 함축의미를 전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함축의미는 광고되어지는 대상 상품인데 중의적 표현으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내용과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친숙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 소비자는 광고와 상품을 교묘하게 관련시킴으로써 연상을 통해 기억에 남게 하려는 광고효과를 노린다면 일부러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광고를 접했을 때 연상 작용을 통해 함축의미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추이다.

방식격률을 위반한 또 다른 예로 일부러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광고효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20) 痒不痒? 痒不? 痒! 痒? 不痒! (999皮炎平)

가려운가요? 가렵지 않나요? 가려워요! 가렵다구요? 안가려워요!---  
999 皮炎平

21) 拍谁像谁, 谁拍谁谁都得像谁 (柯尼卡)

누구를 찍어도, 누가 찍어도 잘 나와요. (柯尼卡)

첫 번째 예는 피부가려움증을 치료하는 연고제광고인데 사용한 글자는 모두 두 글자뿐이다. 거기다 “痒不痒”이 세 번 반복되어서 다소 복잡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문장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이 연고를 바르면 가렵지 않다는 의미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카메라광고도 誰가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하여 처음 들으면 간결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만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를 광고에 역으로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 두 광고는 간결하고 명확한 느낌보다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서 오는 기억효과를 노린 것으로 가추과정을 통

해 광고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함축의미를 논할 때 대화격률에만 의지하여 단순히 추론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기존의 분석이 충분하지 않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때의 추론이 가추적 추론임을 살펴보았다.

가추를 이용한 화용추론은 유머를 이해하는 데도 때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蔣景陽(2006)에서 등장하는 유머를 보자.

22) 一个乡下人初次到城市, 走进一家百货大楼 在走廊上看见一位老太太走进一间小房子。灯光一亮房门关上, 老太太转眼不见了。几分钟后, 房子门一开, 走出一位漂亮的小姐来。乡下人瞪大眼睛, 啧啧称奇地说, “早知如此, 我应该把我的老婆带来。”

(도시구경을 처음 한 시골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갔다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불빛이 번쩍하면서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다. 몇 분 후, 방문이 열리면서 예쁜 아가씨가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시골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마누라도 데리고 오는 건데 말이야”)

여기서 유머는 시골 사람의 말 “早知如此, 我應該把我的老婆帶來”에서 발생한다. 그가 행한 가추적 추론은 다음과 같다.

이미 발견한 사실: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예쁜 아가씨가 나온다.  
가설: 방은 할머니를 아가씨로 변화게 한다.  
결론: 마누라를 데리고 왔으면, 방에 들어갔다 아가씨로 바뀌어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작은 방이 엘리베이터이며, 할머니가 들어가고 좀 있다 아가씨가 나온 사실에서 출발하여,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할머니를 아가씨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蔣景陽(2006)은 유머

가 바로 두 가추적 추론의 괴리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가추를 이용한 유머를 찾기는 쉽다. 다음에 등장하는 ‘영리한’ 주부의 이야기를 보자.

- 23) 一位精明的家庭主妇听人说有一种炉子用起来可以比她现在用的炉子省一半的煤。她听了大为兴奋,说:“那太好了!一个炉子可以省一半的煤,那么如果我买两个炉子的话,不就可以把煤全都省下来了吗?”  
(어느 영리한 주부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석탄이 절반이나 적게 드는 화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흥분해서 말했다. “너무 잘 됐군. 화로 한 개에 절반의 석탄을 절약할 수 있으니 두 개를 사면 석탄을 전부 아낄 수 있겠는걸.”)

이 주부도 가추적 추론을 통해 화로를 두 개 구입하려는 결론을 암시하고 있다. 이 때 유머는 그가 행한 잘못된 가설 즉 하나의 화로가 석탄사용량을 반으로 줄이면 두 개의 화로는 석탄을 전부 절약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생긴다. 다음 세 쌍둥이를 낳았다는 갑을 얘기를 들은 을의 걱정이나, 택시를 따라 뛰어오지 않고 버스를 따라온 남편을 질책하는 아내도 같은 종류의 가추를 이용한 유머이다.

- 24) 甲:我老婆每次怀孕都在读《三骑士》,所以生的都是三胞胎。  
乙:我妻子也怀孕了。坏了,她现在看的书是《阿里巴巴和四十大盗》!  
(갑: 우리 마누라는 매번 임신했을 때 《3인의 기사》를 읽었는데 낳을 때마다 다 세 쌍둥이더라구. 을: 우리 마누라도 임신했네 큰일났다! 마누라가 지금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보고 있는데 ...)
- 25) 丈夫推门进来,气喘吁吁地说:“我跟着公共汽车跑回来,节省了五毛钱”  
妻子一听就来气了:“那么你为什么不用出租汽车跑,那就能节约0块钱哪!”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가 버스를 쫓아서 집에까지 뛰어왔소. 5마오를 절약했지.” 듣고 있던 아내가 화를

냈다. “택시를 쫓아오지 그랬어요? 그럼 10원이나 절약했잖아요.”)

26) 两个成绩极差的学生考试完毕后走到一起。

啊林, 你考的怎么样?”

“没什么, 我交了白卷, 你呢?, 西里?”

“哎, 我也是!”

“那怎么成, 人家会说我们是作弊。”

(성적이 아주 나쁜 두 학생이 시험을 마치고 같이 모였다. “아린, 너 시험 어떻게 봤어?” “별로야, 백지 냈어 시리 너는?” “아유 나도” “그럼 어떡해? 남들이 우리 둘이 보고 베꼈다고 할텐데!”)

두 학생은 시험에서 모두 백지답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흔히 시험에서 두 학생의 답안이 완전히 꼭 같으면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근거하여 결론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오해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 IV. 나오며

이상에서 연역법과 귀납법에 이어 가추법이라는 과학적 추론을 중국어를 대상언어로 하여 살펴보았다. 가추법은 화용론에서 함축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화용추론 과정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추론이다. 따라서 네 가지 대화격률들을 위반함으로써 유발되는 함축의미에 관해, 기존의 화용추론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가추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본고는 중국내에서 이미 화용적 추론의 기본 추론 형태로 알려져 있는 가추법을 소개하고, 화용적 추론을 논함에 있어 가추법에 대한 이해가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 주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근래에 화용론적 언어연구가 성과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연구는 국내 학계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추후 보다 심

도있고 전문적인 화용론적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 < 參考文獻 >

- 이성범,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2001.
- 움베르토 에코지움, 김주환·한은경 옮김,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인간사랑 1994.
- 남정완, <유머텍스트에 나타나는 화용적 후론 구조의 양상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2002년 22집
- 이민우, <中國語에서의 含蓄 現象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 2002 第48輯.
- 김성도, <가추법의 화용론적 함의>, 《담화와 인지》, 1998 제5권 2호.
- 김영진, <화이트헤드의 방법론>, 《화이트헤드연구》, 2005 제8권.
- 沈家煊, <語用原則、語用推理和語義演變>, 《外語教學與研究》, 2004 第4期.
- 蔣景陽, <溯因推理對幽默的解讀>, 《外語與外語教學》, 2006 3期.
- 徐盛桓, <語用推理>, 《外語學刊》, 1991 第3期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이익환등역, 화용론 한신문화사 2002)

### < 中文提要 >

回溯推理是一种独立于演绎、归纳的推理类型,它是从已知结果推断其原因的一种思维方式。回溯推理被深入地应用于诸多重要领域,但它在语言研究方面的应用还起步不久。回溯推理在建立假设阶段起着至关重要的作用,它还可以应用于很多言语幽默和广告中。

“合作原则”是人们言语交际活动中的重要原则,交际中故意违反合作原则

的现象是很常见的。它不但没有造成交际的障碍,反而达到独特的效果。本文通故意违反合作原则各条准则的情况,介绍了所谓语用推理就是回溯推理。

주제어: 가추법, 화용추론, 협동원칙, 광고, 유머

K C I